구룡지 백일홍이 더욱 붉도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結夏安居幾用工(결하안거기용공)
惺惺著意大疑中(성성착의대의중)
西風忽起庭前松(서풍홀기정전송)
隻鶴高飛萬里空(척학고비만리공)
하안거를 결제하고 공부에 얼마나 힘썼는가?
화두가 성성하여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들 앞 노송에는 서풍이 홀연히 불고
한 마리 학은 만리장천을 오르도다.

제방의 수행대중들이여!

화두참구의 일념에 삼복더위는 위세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도다.

노송 그늘을 지나 반석 위를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은 세상의 뜨거움을 식혀주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 더욱 그윽하게 되었도다.

안거가 여법하게 시행되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화두참구의 수행가풍으로 간절하게 정진하니 불조께서 찬탄하시고 제천이 환희하며, 신심으로 대중이 함께하니 참으로 수승하고 거룩한 도량이로다.

종문(宗門)의 수행자들이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온 국토의 경사요 만 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산문 밖 여러 인연에 나누어 줄 선물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는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투쟁이 견고한 세상에는 어떤 방편을 보일 수 있으며, 가뭄과 더위와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

영축산의 소식을 묻는 이에게

그늘이 두터우면 시원한 바람이 일고, 큰 더위가 지나니 구룡지의 백일홍이 더욱 붉게 피었다라 하리라.

山雨濛濛處(산우몽몽처)
喃喃鳥語時(남남조어시)
返觀心起滅(반관심기멸)
風動老松枝(풍동노송지)
가랑비 내리는 산에
재잘재잘 새들이 노래할 때
돌이켜 마음 작용을 살피니
바람이 노송 가지를 흔드도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마음 청정한 그곳이 선방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



山花開處法門開(산화개처법문개)
溪水流時道心明(계수유시도심명)
若問解制何處去(약문해제하처거)
一念無生自在行(일념무생자재행)
산에 꽃 피는 것이 법문이고,
시냇물 흐르는 것이 바로 도이다.
해제해 어디로 가느냐 묻는다면,
한 생각 없이 그냥 가리라.

오늘은 불기 2570년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전국의 선원과 강원, 염불원에서 한마음으로 정진해 온 수행대중에게 깊은 찬탄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도 세속의 번다함을 뒤로하고 한곳에 머물러 좌선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살핀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에게 이 노승이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제하였습니까?"

석 달 동안 닫아 두었던 선방의 문을 여는 것이 해제입니까. 산문 밖으로 나가 다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해제입니까. 결제 때의 수행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제입니까.

참다운 해제는 밖으로 나가는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얽매인 것을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중략〉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선방이고, 지혜가 밝으면 그곳이 도량입니다.

부디 이번 하안거의 정진이 개인의 수행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사회, 나아가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정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모든 수행대중의 노고에 찬탄을 보내며, 해제 후에도 한결같은 정진으로 본래의 마음을 밝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힘차게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一念淸淨天地寬(일념청정천지보)
萬行慈悲法界春(만행자비법계춘)
解制不離心地外(해제불리심지외)
步步皆是菩提門(보보개시보리문)
한 생각 청정하면 천지가 넓어지고,
만행의 자비가 법계에 봄을 이루네.
해제지만 마음 밖으로 떠나지 않으니
걸음걸음 모두가 보리의 문이로다. 합

법어 전문 바로가기

결제 해제 몰록 잊은 곳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아시겠습니까?'

底箇結也是? 解也是?
結解總不是 如何卽是?
이것을 결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해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결제 해제가 다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九旬結解頓忘處 백일 결제 해제를 몰록 잊은 곳에.
火裡生蓮鐵開花 불 속에는 연꽃이 피고 쇠나무에는 꽃이 피는도다.
石人獨宿須彌頂 돌사람은 수미산 정상에서 홀로 잠자고.
木女賣香十字街 나무여자는 십자거리에서 향을 팖이로다.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한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佛性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時節 因緣을 觀하라.
지금 무슨 시절 인연을 말하는가?
흐르는 시냇가에는 버드나무가
황금의 곡선을 길게 드리워 있고,
산중에는 꽃이 활짝 핀 곳에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데,
흰 구름은 푸른 산에 걸쳐 있으니,
山僧의 뜻에 흡족하도다.
좋구나!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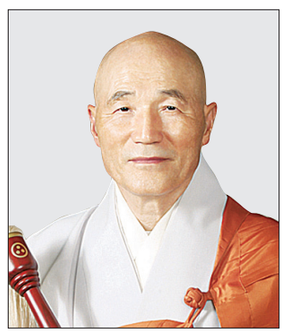
이번 결제에 해결이 안 된 분은
다시 두문불출하고 열심히 참구해서
하루빨리 화두를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깨닫지 못하면
한평생 허망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 화두를 참구해서
하루속히 오도송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필경에 一句를 어떻게 이를 것인가?

日長閒晝永 春老綠陰多
해가 길어지니 한가한 낮이 오래가고,
봄이 깊어지니 녹음이 더욱 우거짐이로다. 喝

법어 전문 바로가기

만행 떠나는 바랑 속 살림살이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오늘은 하안거를 마치는 해제 날입니다.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대중 스님들의 안거를 힘들게 했지만, 대중 스님들의 정진의 원력심으로 무난하게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화두를 들고 안거에 동참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오직 정진한 대중들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若因地倒 약인지도면
還因地起 환인지기라
離地求起 이지구기하면
終無其理 종무기리리라.
만약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리.
땅을 떠나 일어나려 한다면
결정코 그러한 도리는 없으리라.

역대 조사님들이 거듭거듭 말씀하셨기에 대중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일념을 챙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며 이를 악물고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을 돌이켜 알아차립니다.

〈중략〉

有意氣時添意氣 유의기시첨의기하고
不風流處也風流 불풍류처야풍류리라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하니
풍류가 없는 곳이 풍류라.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 스님들의 바랑 속 살림살이여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기를 더해 주며 풍류 없는 적막한 곳의 풍류임을 깨달아 활발발하게 만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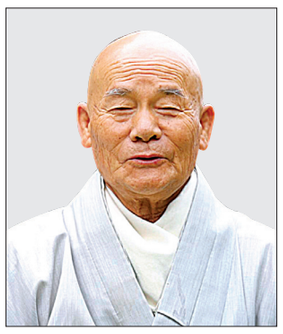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대자연의 무궁한 경관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시고

심신이 충전되거든 또다시 산문으로 돌아와 본분사를 챙기며, 발심수행의 장을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꽉 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하안거를 성만하고 병오년 여름 결제 대중이 덕숭산 대웅전 해제법회에 다 모였습니다.

장하다, 거룩하다, 대종소리 "쾅"

유아독존이요, 시아(是我)로다.

삼천대천세계가 이놈!

궁극이요, 구경이라.

두두가 한 덩어리 이뭘까?

사자 포효에 짐승들 머리 터지네.

천룡은 더욱 싱그러워 돌아서서 미소 짓네.

납자의 옷깃 바람에 천하가 이뭘까로다.

이~뭘까?

백척간두 진일보

어떤 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입니까?

만공스님 갱진교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이로다.

청풍납자 유아독존 오직 이~뭘까?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
밤마다 밤마다 부처님 안고 자네.
아침마다 아침마다
도리어 함께 일어나는 이 부처님
欲識佛去處 只這語聲是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오직 이 말소리, 이놈이었네!

넘실넘실 지심(至心)바다
출렁출렁 꽉 찬 바다
상주일체가 부처님이요,
상주일체가 달마야중이로다.

〈중략〉

願共法界諸衆生
모든 것은 한 덩어리
自他一時成佛道
자타가 일시 성불이라.

눈뜨면 확철대오 이뭘까?

자타일시성불도 길 道, 만고의 길은 이뭘까?

꽉 찬 생명의 이 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 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몰아 몰아 한덩어리 이뭘까?
갓 없는 허공이 이뭘까요,
꽉 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이뭘까 숨통입니다.
이~뭘까?
나무~ 아미타불

법어 전문 바로가기

걸음마다 푸른 연꽃 피어나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眞性無染 本自圓成(진성무염 본자원성)
去來自由 處處安樂(거래자유 처처안락)
참 성품은 물들지 않고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오고 감이 자유롭고
곳곳이 편안하고 즐겁도다.

누구나 간직한 참된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해제가 되어 가고 옴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우니, 어느 곳을 가도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병오년 하안거 해제 날입니다.

안거를 시작한 까닭은 스스로를 경책하여 용맹정진의 기운을 북돋우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거 3개월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정통 수행법을 이어받아 선원에서는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왔습니다. 산문을 나설 때도 화두는 여러분의 호흡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일여(動靜一如)입니다.

〈중략〉

최상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 내는 여의보주(如意寶珠)와 같습니다.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완전히 통달하면,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山門脫却出行時(산문탈각출행시)
步步靑蓮大地翠(보보청련대지취)
不在煩惱卽菩提(부재번뇌즉보리)
自性淸淨本來佛(자성청정본래불)

산문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걸음마다 푸른 연꽃 피어나 온 대지가 푸르르네.
번뇌와 보리에 얽매이지 않으니
스스로의 성품 맑고 청정하여 본래 부처로다.

나무아미타불

법어 전문 바로가기